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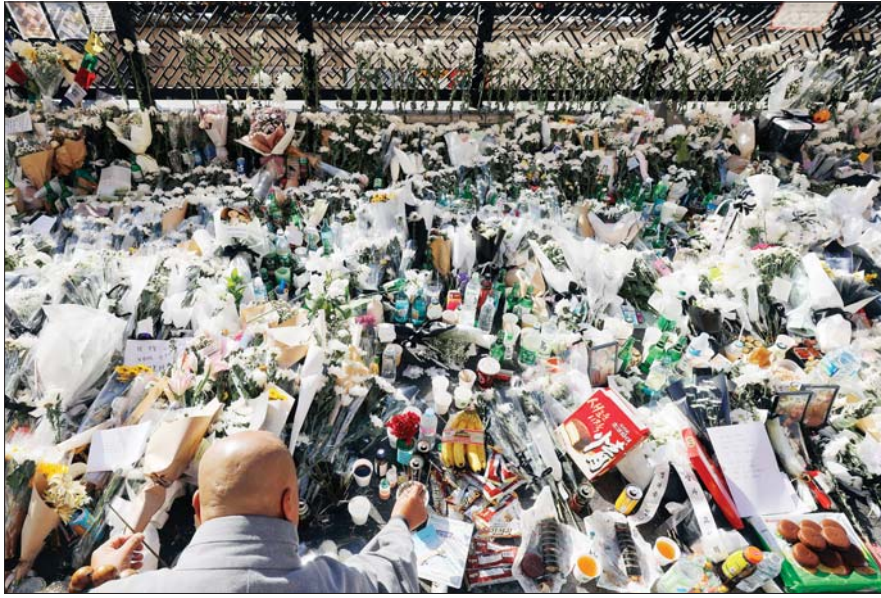
# 학교 안전교육에 밀집장소 수칙 보강... CPR 교육도 강화

**교육부,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재검토**  
이태원참사 후 안전교육 미흡 목소리  
조희연 “서울의 모든 학생들 위해  
안전교육 획기적 강화 방안 고민”  
대학생 대상 교육강화 진행할 듯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해 교육계가 안전교육 점검에 들어갔다. 특히 밀집장소, CPR 등의 안전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급하게 안전교육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교육 현장과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졌는지는 미지수다.

2일 교육부는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개정안 재검토 중에 있다며 ‘다중밀집장소’의 안전수칙 교육 강화 추진을 시사했다. 현재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에는 군중 밀집지역의 위험성 등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중 밀집장소에서의 안전수칙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2022 교육과정 시간에도 보건



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에 국화꽃이 가득 쌓여 있다. /뉴스1

교과 건강안전 단원에 CPR 교육과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교육과정 시안은 잡음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참사 이후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강화 목소리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는 보건

교과가 따로 없을 뿐더러, 중·고교의 경우 선택과목으로 돼 있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내 합동분향소에 조문한 자리에서 “서울의 모든 학생들을 위해 심폐소생술 같은 안전 교육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이번 기회에 고민해 보겠다”며 CPR 교육의 강

화를 시사했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즈의 ‘청소년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모델 개발 및 효과성 평가(2014)’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도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이 주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5개의 참여 중학교를 선정해 ‘중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및 설문’한 결과 심폐소생술 교육의 효과가 드러난 바 있다. 교육 전 중학생들이 심폐소생술을 꺼리는 이유를 ‘방법을 몰라서’로 응답한 경우는 9.3%였지만 교육 후 0.7%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또한 심폐소생술을 ‘전혀 꺼리지 않음’이 교육 전 11.5%에서 교육 후 26.4%로 증가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단순히 안전교육 시수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안전교육의 경우 보건 교사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그런 범교과 시수가 너무 많아 단순히 안전교육 한두 시간 늘리는 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이미 범교과 수업이 많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은 오히려 문혀 버릴 수 있다”며 “단순히 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 실제적으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이번 참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 사회가 어떤 대처를 해야 마땅한지, 바람직한 애도의 방식 등을 논의하며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대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만큼 대학생 대상 안전교육 강화도 주목되고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대학생 안전교육은) 아마 대학 측과 공감이 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다”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저희가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화예술계의 경우 주최 측이 불분명하고 소규모 행사가 많아 가이드라인 필요해 보인다. 강대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은 “대관 문제가 있어서 주최 측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이태원 참사 관련 학생에 심리상담비 지원

**서울시교육청, 학생 우울·불안감 증대  
지원대책 마련... 치료비 긴급편성**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태원 참사 관련 사상자 발생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긴급 상담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사상자 발생 학교 학생의 우울감·불안감이 증대함에 따라 심리·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돌봄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상자 소속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위한 치료비를 긴급 편성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부상 학생에게는 심리상담비 및 정신과 치료비와 신체상해 치료비를 지원하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심리상담비 및 치료비 지원 내용) /자료=서울시교육청

지원대상	치료비지원기준(1인당)
사고 부상 학생	심리상담비 및 정신과 치료비: 200만원 이내 신체상해 치료비: 200만원 이내
사망자 발생 학교의 학생	심리상담비 및 정신과 치료비: 200만원 이내

며, 사망자 발생 학교 학생에게는 심리상담비 및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이태원 참사 관련 사상자 발생 학교, 이태원 인근 학교 및 일반 학교에 대한 심리·치유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월 31일 서울학생 마음건강돌봄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학생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도움자료를 전체 학교에 긴급 안내했다. 더불어 심리·정서상담 지원 가능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사상자 발생 학교에는 위(We

e)클래스에 특별 상담실을 설치해 취약 학생 검사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위(We)센터는 학급 대상 안정화 교육 및 애도교육을 적극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심리상담비 및 치료비 긴급 지원이 사상자 발생 학교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태원 참사 관련해 학생의 심리·정서가 안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 오늘부터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

교육부, 수험생 이용시설 방역점검

3일부터 수능일인 17일까지 안전한 수능 시행을 위해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3일부터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 최소화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 준수사항 이행을 적극 유도한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지

자체와 협력해 게임제공업소(PC방 등), 노래방,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 상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 동안 가정 내 방역 수칙 준수를, 다중 이용시설 중 3밀이라 불리는 밀폐·밀집·밀접 환경 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또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인근 병·의원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의무 기간(7일)을 고려해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관할 교육청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하은 기자

## 수석교사 수업사례 공유 장 열렸다

서울교육청, 수업·평가나눔 한마당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중등수석교사회는 오는 14일 ‘수업, 꽃으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중등 수업·평가나눔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수석교사의 수업·평가 혁신 연구 결과와 수업 사례를 서울 전체 중·고등학교 교사들과 공유하며 현장 교사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중등수석교사회 주관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신주는 서울중등수석교사회 회장은

이번 한마당이 선생님들의 다양한 ‘수업 꽃’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업, 꽃으로 피어나다’라는 이번 한마당의 주제가 상징하는 것처럼 ▲학생 한명 한명에 맞춘 개별화 수업 꽃 ▲생태 전환 수업과 에듀테크 활용 수업 꽃 ▲수석교사들의 수업 꽃 등 다양한 ‘수업 꽃’ 사례 나눔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행사 프로그램으로 신 회장의 개회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축사에 이어, 서울중등수석교사회 분과별 연구분야에 따른 7개 주제에 대한 주제별 특강, 수업사례 나눔과 수업 대화 등 총 26개 강좌가 운영된다.



강좌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 화상으로 진행된다. 주제는 참가 희망 교사 1000여명이 사전 선택한 ▲생태 전환 ▲비판적 사고 ▲감성 ▲창의 상상 ▲독서·토론·글쓰기 ▲과정중심평가와 피드백 ▲에듀테크 활용 등 7개로 구성됐다.

조 교육감은 축사에서 “‘수업, 꽃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 속에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아름다운 수업 꽃을 피워 낸 선생님들의 노고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 얼음성장 촉진·억제 ‘결빙제어 소재’ 개발

안동준 고대, 김병수 연대 교수팀

안동준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KU-KIST융합대학원 겸임) 교수팀과 김병수 연세대 화학과 교수팀은 얼음 성장을 촉진 또는 억제하는 것을 원하는데로 조절할 수 있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구현하는 결빙제어 소재를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사업과 중견연구사업으로 수행됐다. 연구성과는 ‘Janus Regulation of Ice Growth by Hyperbranched Polyglycerols Generating Dynamic Hydrogen Bonding’라는 논문명으로 복합자연과학분야의 세계적 권위 학술

지인 Nature Communications (IF=17.694)에 11월 1일자 온라인 게재됐으며, 관련 국내외 특허를 확보했다.

결빙제어 소재 개발은 주로 극지방 생물의 체액에 존재하는 결빙방지 단백질의 기능을 모방함으로써, 냉해동 과정에서 얼음의 변이에 의한 생체시료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동결보존제로 활용돼 왔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얼음 성장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이와 반대로 얼음을 빨리 자라게 만드는 소재나 조건에 따라 결빙 촉진 및 억제가 모두 가능한 소재를 개발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연구팀은 3차원 구조가 정교하게 제어된 생체적합 고분자를 활용해 얼음 형성의 촉진과 억제를 조절할 수 있었다.

/신하은 기자